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 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9월 6일 제 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국의 미래와 이어진 혁명의 교단을 지켜가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대회에 참가한 교육자들은 조국의 한끝 심심산골, 외진 섬에서도 언제나 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한쌍의 가장 크고 소중한 소원을 성취하게 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교육발전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인재교육전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선으로 그 위치를 비상이 높여주시였으며 교원들을 교육혁명의 전초병들로, 조국의

미래를 꼭 말할수 있는 미더운 혁명원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시며 기쁨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무한한 격정속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믿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교

원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시며 기쁨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무한한 격정속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믿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교

새겨가는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원들은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키우는 공산주의자이며 참다운 애국자, 직업적혁명가이라고 하시면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가 교육사업에서 근본적

을 위해 헌신분투하며 애국충정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고있는 총련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총련교육 일군대표단 성원들을 몸가짜이 부르시어 특별히 따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교육부문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원들과 교육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발전혁명방침관철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지혜와 열정을 다바침으로써 교원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간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9월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해보시며 이번 시험사격에서 확증할 지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두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되

었다.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은 시험사격목적에 완전부합되었으며 무기체계완성의 다음단계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측면과 비행계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개발사업에서 련속적이며 기록적인 성공을 안아오고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우리 식 전술유도무기들의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국방과학분야의 최첨단설계목표들을 계속 즐기차게 점령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었다. 전체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지도간부들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져주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자기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충실하게 받들어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국방과학연구구성파들을 계속 이룩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승려한 통일이지로 학생을 불러주시며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었다. 최대의 념원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분열을 막지 못하면 누구도 후대들앞에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시며 어느 하루도, 한시각도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잊으신적이 없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제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을 매우 가슴아파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불면 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셨다.

주제 83(1994)년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82돐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외국선생들과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에 찾아왔다.

이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서 바쁜 나날을 보내시었다. 뜻깊은 4일의 하루하루를 분망하게 보내시면서도 아버지수령님의 침중에는 언제나 조국통일문제가 자리 잡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꾸바 브렌짜 라띠나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엄중할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우리는 조국통일의 정도에 대하여 확관하고있다고 신심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갈망하

고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조국통일방안이 있는 이상 조국통일의 력사적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확신되니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 《워싱턴 타임스》기자단, 미국 CNN TV방송회사기자단, 일본 방송협회기자단 등을 련이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자신의 드림없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길을 걸어오시며 그 길에서 어느덧 80고령에 이르시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날날 재도이철란드교포인사와 재미교포 내류기자도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가장 훌륭한 애국이며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속시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신 이야기는 오늘도 겨레의 가슴가슴을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으로 끓여넘치게 한다.

재도이철란드교포인사를 만나신 자리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업에 헌신하려는 그의 결의를 들으시고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은 조국애, 민족애의 숭고한 발현이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애국은 없다고,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아야 하며 실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싸우다가 쓰러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예로운 일로 되기때문에 후회 가 없을것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재미교포들 너머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평생의 로고와 그 길에서 쌓으신 크나큰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당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자본가들을 다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악덕자본가만 반대한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바라는 민족자본가는 배척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해방직후부터 일관하게 견지해 오는 립장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해방후 자신께서 하신 개선선설내용을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나는 주석단에 올라가 원고없이 언설하면서 전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시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것을 호소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때 문익환목사는 수령님의 교시를 듣고 남조선의 자본가들때문에 신경을 써했는데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시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으로부터 이런 뜻깊은 이야기를 들은 재미교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어리숙도 잊고 아버지수령님께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시겠는가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얼마동안 그렇게 할수 있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었다.

사상과 정경보다도 통일이 라는 민족사적대업과 한미결이라는 동포애대업과 더불어 귀중히 여기시는 뜨거운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의 화신이신 절세위인을 우리로써 그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정령 아버지수령님께서 송고한 조국통일의지로 한생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평생의 로고와 그 길에서 쌓으신 크나큰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공화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에 맞게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폭넓은 협상 제안들을 내놓고 그 리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71년 4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 제는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는데 대하여》가 의의되었다. 회의에서는 공화국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의한 평화통일방안들에 기초하여 8개 항목의 방안을 담은 호소문이 채택되어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져왔다.

최고인민회의가 제기한 8개 항목의 방안에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남한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이하로 축소, 자주적,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자유로운 북남총선거 실시,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 수립, 과도적대력으로 북남련방제 실시, 민족의 당면 과업을 협의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호소문은 이밖에도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 호상 리해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것이라는것을 밝히었다.

공화국의 이러한 평화통일방안은 나라가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들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 60(1971)년 8월 6일 당시 캄보자 국가원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언설에서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내놓으시었다. 그것이 바로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들과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방

안이었다.

이 방안은 국내외의 변화된 새로운 정세속에서 통일의 물과구를 열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결정적인 대책이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때에 와서도 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실제행동으로는 공화국의 접촉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규탄을 받고 압박으로 고풀릴수 있었다. 북남협상에 대한 내외의 지지와 여론의 압력이 강화되자 《신건설, 후퇴 통일》, 《승공통일》 론을 내놓고 통일에 대한 논의와 북남간의 그 어떤 접촉도 완강히 거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은 북남직접사담담 형식으로나마 대화마당에 응해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공화국정부는 적실자담담에 이어 대화의 격을 높여 정치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주동적으로 기울여나갔다.

공화국정부의 북남대화실현을 위한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노력을 위해 고위급정치회담을 위한 접촉이 1971년 11월에 진행되었었다. 그로부터 5개월만에 쌍방은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여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다.

마침내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쌍방고위급대표들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성사된것은 공화국정부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받들고 인드주의적회담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며 정치회담을 마련하기 위해 기울인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 놓은 일대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바로 이 첫 고위급정치회담에서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하였다.

은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열기와 커다란 관심속에 북남사이의

폭넓은 북남협상방안과 7.4 공동성명의 발표

첫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던 나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에 남조선측 대표를 친히 만나주시고 자신께서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될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짚아가시며 그 본질적 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었다.

그것은 우선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으이지 않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국도가 분열된 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거듭 제기하여 온 통일제안들을 집대성하고 구현한 통일강령이었다. 또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자주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었다.

이렇듯 위대한 통일강령이기에 남측대표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고 나가겠다는것을 확약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서 공화국측은 이미 합의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공동의 강령으로 삼을데 대한 문제와 민족공동의 상설직접의기구로서 《북남조절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 그리고 쌍방의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국도가 분열된 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거듭 제기하여 온 통일제안들을 집대성하고 구현한 통일강령이었다. 또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자주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었다.

이렇듯 위대한 통일강령이기에 남측대표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고 나가겠다는것을 확약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서 공화국측은 이미 합의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공동의 강령으로 삼을데 대한 문제와 민족공동의 상설직접의기구로서 《북남조절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 그리고 쌍방의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국도가 분열된 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거듭 제기하여 온 통일제안들을 집대성하고 구현한 통일강령이었다. 또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자주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었다.

이렇듯 위대한 통일강령이기에 남측대표도 전적인 동의를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소식을 크나큰 흥분속에 접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



대을민과 그의 가족

공화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태을민)는 누구보다도 생활을 사랑하였고 특히 자식들을 남달리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전후에 친지분들의 권고로 황해남도태생의 약전하고 마음씨 착한 어머니(김경옥)와 새 가정을 이루었다.

어머니가 들려준데 의하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몹시 바랐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어머니는 처음부터 딸을 낳았는데 그것도 좋잖이 다섯씩이나 낳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다섯번째로 딸을 낳았을 때는 얼굴도 못 들고 소리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없소. 딸이 다섯이면 뭐라오? 내 이제 우리 딸들을 다른 집아들 열댓집이로 키울테니 두고보오》라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셨다.

이것은 안해를 안심시키려고 한 허풍이나 빈말이 아니었다. 실지로 아버지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 애절한 사랑과 뜨거운 정을 쏟아부으셨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그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흔히 모성에 대하여 말하곤 한다. 하기에 자식들을 위해 오만자루품을 들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노래도 많고 시도 많은것이이다. 하지만 부성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것은 아버지라고 하면 지엄한 가장으로서 사랑도 결코가 아니라 웅심있게 한다는것이 불문불로 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정말 특별하였다.

지금도 손목과 옷살을 잡고 조루조루 메달리는 딸들을 한겨번에 두명, 세명씩 안아보며 시름없이 웃으시

던 아버지(아버지는 원래 눈이 좀 작은편이였는데 웃을 때는 그 눈이 아예 실눈이 되고말았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손수 써붙인 일과표와 《가정경정도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거기에 띄여진 우리 자매들의 이름우에는 아버지가 조그마한 병마개로 직접 만든 《오각별도장》이 수두룩이 찍혀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면 문밖에서부터 《내 딸들이, 아버지가 왔다》라고 큰소리로 우릴 부르시곤 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저제나 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우리 자매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문밖으로 뛰어 나갔다.

아버지의 손목과 옷자락에 저마끔 메달려 방안으로 들어온 우린 누가 《혜쳤!》 구령이라도 내린듯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누구는 순제장을, 누구는 시험지를 꺼내 놓으며 사랑에서 부산을 피워내며 딸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아버지는 웃도 버지 못한채 기다리곤 하셨다. 아버지는 한평한명 간간히 속제검열을 끝내고는 곧 《가정경정도표》에로 다가가 빨간 오각형을 찍어주었다. 오각형이 하나씩 오를 때마다 짹짹그르 박수소리가 울리었다.

아버지가 울리는 경정도표

에는 어머니의 이름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올라 있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도포를 울리는 사람인데 어째서 자기 이름을 써넣었을까 하는 의혹이 떠나지 않았었다. 철이 들면서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스스로 랑시의 총화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엄격한 시험관처럼 관감한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우에는 무작정 오각별을 올려주곤 하셨다. 가정의 크고작은 일을 말아안고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바라.》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꿀맛이라고 위우던 그 비밀밥이 잊혀지지 않아 자식들에게 그때처럼 비밀밥을 만들어주곤 한다. 그리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비밀밥이 정말 꿀맛이구나.》라고 말

아버지는 정직성과 솔직성,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였는데 배우여서인지 금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군사적결탁

미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적 공조결탁이 더욱 로골화되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러 8월 26일부터 미국과 일본은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9월 23일까지 거의 한달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에 긴급 투입되는 미군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전개결탁을 숙달하는 《연합전시중립훈련》을 비롯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여러가지 도발적인 내용물로 일관되어있다.

지난 시기 미국과 일본은

해마다 미육군과 일본육상 《자위대》를 동원한 대대급실동훈련, 러단급지휘소연습, 연합실탄훈련 등을 진행하였지만 훈련지역을 주로 조선반도와 멀리 떨어진 일본동북부에 정박한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조선의 부산과 가까운 일본서부의 규슈섬일대를 훈련지역으로 정하고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정한 《연합전시중립훈련》에 연습의 초점을 두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조미관계선을 지향한다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하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

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강행하고 첨단전장장비들을 연이어 들이치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일본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정한 침략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

앞에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뒤에 돌아앉아서 공화국을 압살할 군사행동에만 매여달리는 미국의 2중적행위는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는것으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섬나라 건축들이 이러한 전쟁연습을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물을 만난 고기처럼 전쟁불장안에 뛰어들고있는것이다.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감행되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재침착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지금 일본은 헌법을 뜯어고쳐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하고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 《SM-3》요격미사일 등 첨단군사장비들을 도입하여 일본 《자위대》를 이전 시기의 《무적의 황군》으로 만들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전쟁으로(다케시마)》(독도)를 되찾아야 한다. 이는 망발이 국회의원이라는자의 입에서 탕탕 튀어나오는 속에 얼마전에 역행하는 미국과 일본의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본사기자 안권일

동원하여 35의 실탄까지 확대하며 전쟁광기를 부리었다. 섬나라 일본에서 조선반도 쪽으로 전쟁의 화약내가 질게 풍겨오고있는것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은 물론 아시아인들이 날로 무모해지는 일본의 군사적광기에 시선을 모으고 주시하고있다.

미국과 재침에 피눈이 된 일본의 군사적공조결탁은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움직임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과 일본의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본사기자 안권일

시

레위기라 오늘의 《을사오적》을!

김승림

사대에 찌들고 환장한 매국노들
내뱉는 친일망언도 모자라
친일도서까지 빼앗아 만들어냈다
《반일종족주의》
천하에 돌도 없는 매국도서를

외국과 날조의 그 갈피를 번져보라
우리 민족에게 들쭉운 죄악을 부정한
니절한 이 책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신통히 섬나라족속들 울조려대는
그 위선의 망발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친일매물로 연명해온 민족반역자
그 후에들이 《학자》의 탈을 쓰고
오늘도 활개치고있다는것이
민족의 존엄, 리익을 파는 이런 토착
왜구들
이 땅에 기생충마냥 서식하고있다는것이

족보를 파본들 일본인이 아닌지
몸통이엔 섬나라의 피가 흐르지 않는지
들리지 않느냐
치를 떠는 민심의 규란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행세를 하는 토착
왜구!

그렇다!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름없는 이 쓰레기
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 통째로 팔아먹은
통치자참해야 할 오늘의 《을사오적》

불사라라, 《반일종족주의》
친일에 물젖은 이 매국도서를
조선사람—신성한 이름을 모욕하는
토착왜구의 무리 약질보수세력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산산히 태워버리라

지구상에는 여러 정당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고있다.

남조선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만은 《부정부패당》, 《오물정당》, 《맹천수구당》, 《적폐당》이라는 오명으로 불려오고있다.

하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자기의 이름대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역스러운 오명으로 불려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아래의 몇가지 사실들은 그 오명들을 해명해주는 리유가 될것이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만은 《부정부패당》, 《오물정당》, 《맹천수구당》, 《적폐당》이라는 오명으로 불려오고있다.

하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자기의 이름대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역스러운 오명으로 불려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로 병역면제관정을 받았다. 문제는 황교안이 《만성담마진》 진단을 1980년 7월 10일에 받았다는 점이다. 병역면제관정을 받은 이후 이다.

황교안은 병을 확인하기 전에 군면제부터 받은 셈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진단서를 가져가도 군면제관정을 받았다.

문제는 황교안이 《만성담마진》 진단을 1980년 7월 10일에 받았다는 점이다. 병역면제관정을 받은 이후 이다.

황교안은 병을 확인하기 전에 군면제부터 받은 셈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진단서를 가져가도 군면제관정을 받았다.

악용하여 자식도 재가 있는 대구에서 군대복무를 편안하게 하고도 하였다.

결과 병역비리만이 아니라 황교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자기의 아들들 《KT》(《통신업체》)에 특별입직시켰다.

《KT》 채용비리에는 황교안뿐만아니라 《자유한국

당》의 김성태의원도 연루되어있다.

이외에도 황교안은 재산과 관련된 의혹과 《세월》호참사관련수사에 대한 압력, 성범죄자 김학의와 사법공단의 주범인 량승태에 대한 비호 등 수많은 범죄와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렀다.

당대표인 황교안이 이렇다면 원내대표인 라경원도 또 어떠한가.

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라경원의 부정부패행위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

고있다.

실로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불법과 무법, 패륜, 매덕이라는 고악한 악취와 고름이 짙 들어찬 썩은 몸통이다.

그러니 남조선인들이 어찌 《자유한국당》을 《부정부패당》, 《오물정당》, 《쓰레기당》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가관은 《자유한국당》이 악취만 풍기는 썩은 몸통을 흔들어 《청렴결백》을 운운하는것이다.

얼마전 어느 한 장판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 때에도 온갖 부정부패행위로 규탄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는 깨끗한데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리저리란 의혹들을 기정사실화하며 피대를 돌리며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으로부터 받은 불명예스러운 대명사들을 씻는 길은 해산하는것밖에 없다.

백광수

부패정당의 《청렴》타령

면제를 받기 어렵다. 명백한 특혜이며 비리의혹이 나올수 밖에 없다.

에초에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것자체가 이례적이다.

2013년 병무청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관정을 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명중 4명뿐이었다.

황교안은 대구고등법원 검사장이라는 자기의 직위를

의 김성태의원도 연루되어있다.

이외에도 황교안은 재산과 관련된 의혹과 《세월》호참사관련수사에 대한 압력, 성범죄자 김학의와 사법공단의 주범인 량승태에 대한 비호 등 수많은 범죄와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렀다.

당대표인 황교안이 이렇다면 원내대표인 라경원도 또 어떠한가.

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라경원의 부정부패행위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

킨 의혹과 부동산투기의혹, 불법정치자금세탁난 등 수많은 부정부패의혹들을 가지고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으니 《자한당》의 《국회》의원들 역시 부정부패를 탐욕하고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식이나 친척들을 먹여살리는 기업들에 불법채용청탁을 한것으로 하여 재판을 받

고있다.

실로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불법과 무법, 패륜, 매덕이라는 고악한 악취와 고름이 짙 들어찬 썩은 몸통이다.

그러니 남조선인들이 어찌 《자유한국당》을 《부정부패당》, 《오물정당》, 《쓰레기당》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가관은 《자유한국당》이 악취만 풍기는 썩은 몸통을 흔들어 《청렴결백》을 운운하는것이다.

얼마전 어느 한 장판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 때에도 온갖 부정부패행위로 규탄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는 깨끗한데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리저리란 의혹들을 기정사실화하며 피대를 돌리며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으로부터 받은 불명예스러운 대명사들을 씻는 길은 해산하는것밖에 없다.

백광수

시

함께 매장해버리자

리철준

산송장을 기어고 살려보려고
무던히도 발광하는 보수세력들
특등범죄자 박근혜에게 내리친 판결
기를 쓰고 부정하며 탄동을 부려댄다
그 무슨 《국민허탈》나발을 불고있다

보라, 역도를 끝장버리는 분노한 민심
그 민심이 어떻게 도전해나섰는가
《대법원은 좌파정권의 주구》
《박근혜를 당장 석방하라》
피대를 돌구는 보수세력들을

가소롭다. 이리저리 물러다니며
감옥귀신의 망령가를 제쳐대는 불굴들
산송장에 기대어 잔명을 버리려

재집권의 야망 어떻게나 이루어
갖은 발악 다하는 추악한 무리들

역도를 한사코 비호두둔하며
력사를 되돌리려 발악하는 무리들
그 역적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남녘은 또다시 독재의 쇠사에 얽히고
초물항쟁의 전취물도 지킬수 없거니

함께 보내자 력사의 무덤으로
암흑의 시대 되살려보려는
박근혜와 똑같은 범죄의 무리
《자한당》과 《우리공화당》 패거리들
천하악녀와 한 동아줄에 묶여
영영 매장해버리자 청산해버리자

《보안법》철폐를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여러 통일운동단체성원들이 8월 31일 서울에서 《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보안법》이 파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을 우민화하고 미국의 종으로 부러먹는 데 이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하여 많은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추방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보안법 폐지하라》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청와대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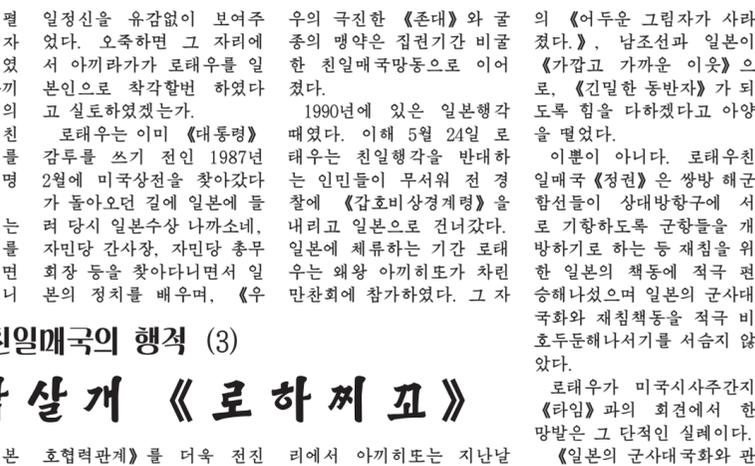
5일 민가협심상수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보안법》철폐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하에서도 정보원의 인권침해행위가 계속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부산과 인천을 비롯한 각지에서 《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보안법》철폐투쟁을 중단없이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일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아끼라가가 로태우를 일 본인으로 착각할뿐 하였다 고 실로하였는가.

로태우는 이미 《대통령》 감투를 쓰기 전인 1987년 2월에 미국상전을 찾아가다가 돌아오던 길에 일본에 들러 당시 일본수상 나가소베,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총무 회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일본의 정치체를 배우며, 《우

우의 극진한 《존대》와 굴종의 맹약은 집권기간 비굴한 친일매국망동으로 이어졌다.

1990년에 있는 일본행각 때였다. 이해 5월 24일 로태우는 친일행각을 반대하는 인민들이 무서워 전 경찰합선들이 상대방항구에서 기항하도록 군강들을 개방하기로 하는 등 제법을 위한 일본의 책동을 적극 승혜나섰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을 적극 비호두둔해나서기를 서슴지 않았다.

로태우가 미국시사주간지 《타임》과의 회견에서 한 말발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하여 아시아국가들이 너무 일본의 군국주의과거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경제강국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는 방향에서 자위력증강에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로태우에게 일본개의 이름을 붙여 《로하찌꼬》라는 별칭을 붙여준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로태우군사독재 《정권》 역시 친일매국 《정권》으로 력사에 두고두고 치욕의 락인을 찍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보수세력의 야합놀음은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라고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4일 《제2의 새누리당은 실체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였다.

사설은 박근혜악재 《정부》에 가담하였던 《새누리당》 출신들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야합놀음을 벌려놓은데 대해 폭로하였다.

《통합》, 《혁신》의 간판을 내세운 《자한당》 중심

의 《보수통합》은 초불합쟁의 심판을 받은 《새누리당》 재건음모라고 사설은 가 밝혔다.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벌리는 《보수통합》, 《제2의 새누리당》 재건음모는 이미 파벌이 립박한 황교안과 《자한당》악세력의 마지막악악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

고있다.

《자한당》의 《보수통합》은 제2의 초불합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민중으로부터 버림받은지 오랜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합은 결국 보수세력체제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노래 창작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각계층에서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노래들이 창작되고있다고 한다.

청소년통일선봉대는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9 자주통일대회》에 참가하여 동요와 만화주제가들로서 《자한당》해체주제의 노래를 불러 각계층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청소년통일선봉대는 《자한당》해체를 주제로 하는 또다

른 노래를 지어 소개하였다.

1부터 10까지의 수자를 가사 매 행의 첫 글자로 하고있는 이 노래는 누구나 싫어하는 《자한당》을 두고 모두가 해체를 요구하니 말쑥피우지 말고 당장 사라지라는 내용으로서 소개되자마자 수많은 인터넷트래거들이 《아주 시원하다》, 《우리 청소년들 대단합니다!!!》 등의 글로 호응하였다.

본사기자

일본을 비호하는 미국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 대학생진보련합, 청년당이 6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을 비호하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체제조직에 맞선 군사정

보보호협정폐기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편만 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력사를 살펴보아도, 독도 문제를 놓고보아도 미국은 일본의 편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20세기초 미국이 일제의 조선강점을 용인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그들은 미국이 국민의 반일 항전의지를 꺾으려 하지 말고 남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단체들은 일본전범기 등을 그린 인체물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국악무도한 폭압정치를 펼치고 조선의 인적, 물질자원을 강그리 략탈하던 때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아끼라가가 로태우에게 일제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친일사상과 《황국신민화》를 불어넣었던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래서인지 로태우는 아끼라가를 만나자 그를 《참스승》으로 곁여올리면서 《센세이》(선생)이니

일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아끼라가가 로태우를 일본인으로 착각할뿐 하였다 고 실로하였는가.

로태우는 이미 《대통령》 감투를 쓰기 전인 1987년 2월에 미국상전을 찾아가다가 돌아오던 길에 일본에 들러 당시 일본수상 나가소베,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총무 회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일본의 정치체를 배우며, 《우

우의 극진한 《존대》와 굴종의 맹약은 집권기간 비굴한 친일매국망동으로 이어졌다.

1990년에 있는 일본행각 때였다. 이해 5월 24일 로태우는 친일행각을 반대하는 인민들이 무서워 전 경찰합선들이 상대방항구에서 기항하도록 군강들을 개방하기로 하는 등 제법을 위한 일본의 책동을 적극 승혜나섰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을 적극 비호두둔해나서기를 서슴지 않았다.

로태우가 미국시사주간지 《타임》과의 회견에서 한 말발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하여 아시아국가들이 너무 일본의 군국주의과거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경제강국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는 방향에서 자위력증강에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로태우에게 일본개의 이름을 붙여 《로하찌꼬》라는 별칭을 붙여준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로태우군사독재 《정권》 역시 친일매국 《정권》으로 력사에 두고두고 치욕의 락인을 찍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건축과 건설의 첨단을 향해

—록색건축기술교류사에서—

록색건축기술교류사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색건축기술교류사이다. 이곳에서는 건축과 건설분야에서의 첨단이라고 할수 있는 록색건축기술에서 세계를 압도할 야심을 가지고 연구사업과 기술교류협조를 활발히 벌이고있다.

얼마전 기자는 건물모양이 마치 활짝 피어난 세개의 꽃송이를 연상케 하는 록색건축기술교류사를 찾았다.

건물안은 태양빛유도자연조명체계, 비물회수리용기술, 지열냉난방보장기술을 비롯한 록색건축기술이 도입

되어 자연효과가 있으면서도 안정된 생활환경을 펼쳐보이고있었다.

이곳 교류사의 일군은 누구나 록색건축기술교류사 건물안으로 들어서니 부부인들부터 록색건축에 대하여 자연히 관심을 돌릴수 있도록 건물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록색건축은 자연을 최대한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자연과 잘 어울리는 건축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에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였거나 지붕에 록색화장기만을 록색건축이라고

리해하고있던 사람들도 이곳에서 봉사받으면서 록색건축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건축설계실에 들어서니 부부인들부터 록색건축에 대하여 자연히 관심을 돌릴수 있도록 건물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록색건축은 자연을 최대한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자연과 잘 어울리는 건축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에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였거나 지붕에 록색화장기만을 록색건축이라고

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있었다. 공훈과학자인 허준삼연구사는 국내산 원료에 의거하여 개발한 향긋한 향균성이 수성칠감을 실제로 들면서 성능이 우수하고 원가도 수입산에 비해 낮아 호평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료실과 지능건축기술봉사실들을 돌아보고 각종 록색건축제품을 봉사하는 전시장들로 걸음을 옮기었다.

전시장에는 록색건축을 받아들이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건축재료와 마감건구류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보통강구역 서장에서 살고있다는 한 녀성은 바다거나 소나무숲에 가면 음이온이 많아 기분이 상쾌한것처럼 이곳에서 봉사받은 음이온벽지가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말했다.

건축과 건설의 첨단인 록색건축창조의 앞장에 서있는 록색건축기술교류사를 돌아보면서 기자는 더 활짝 꽃피울 사회주의문명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았다.



기능성 남새작물들

◆아욱
아욱은 잎과 어린 순을 식용으로 리용하는 남새작물이다.

아욱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물질들이 풍부히 들어있다. 필수아미노산조성은 젖단

효과가 있다.

아욱의 잎, 꽃, 줄기, 뿌리도 모두 약재로 리용할수 있다. 아욱의 어린 순과 잎은 생것으로 리용할수 있고 국이나 생채, 볶음 등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특히 물고기회나 고기볶음을 만들때 아욱을 넣으면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음식의 맛을 더욱 돋구어 준다.

로에 효과가 있다.

쪽양파에는 또한 비타민B1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위장막을 자극하여 위액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피가 잘 흐르게 할뿐아니라 비타민B1의 흡수를 촉진시켜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밖에 쪽양파는 진정작용을 하며 피로해진 대뇌의 기능을 빨리 회복시킨다.

쪽양파의 잎과 밑은 양념감으로 리용되며 볶음이나 무침을 만들수 있다.



백질과 류사하며 여러가지 비라민과 광물질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아욱으로 국을 끓여 삼년을 먹으면 외젠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아욱씨를 고려약재로 널리 리용하였다. 붓기와 오줌장애, 변비증 등을 치료하는데

◆쪽양파
쪽양파는 양파의 변종으로서 잎과 밑을 모두 식용으로 리용하는 남새작물이다.

쪽양파에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여러가지 광물질과 비라민류, 매운 맛을 내는 정유물질들이 들어있다.

쪽양파는 우수한 약효성분을 많이 함유하고있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병, 암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지기우라고 한다. 이것을 줄여서 지기라고도 한다. 친구라는 말보다 정다운 말이다.

수어지교는 물과 고기사이와 같

은 사귀를 말한다. 그야말로 뿔레야 뿔수 없는 사이를 말한다.

문경지교는 친구를 위

인체건강과 인생목표

흔히 사람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총명하면 큰 인물이 될 재목이라고 한다.

물론 한 인간이 인생길에서 쌓는 공적이 타고난 자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최근 생활에서 목표를 세우는것이 사람들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는 등 인체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40살~90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데 의하면 명확한 인생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목표가 뚜렷한 사람보다 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장 및 뇌혈관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명확한 인생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머리를 쓰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뇌혈관은 정상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으며 그렇게 되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대뇌의 회로를 막을수 있다.

해 목숨도 내놓을수 있는 의리있는 사이를 가리킨다.

금란지교는 친구사이의

막역지우는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친구사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매우 친한 사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서로 막역한 사이이다.》라고 한다.

막역지우는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친구사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매우 친한 사

를 끊을수 있는데 그 향기가란초와 같다고 하여 금란지교라고 한다.

막역지우는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친구사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매우 친한 사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서로 막역한 사이이다.》라고 한다.

막역지우는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친구사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매우 친한 사

사화

군장산과 로적봉 (2)

글 강정구, 그림 채대성

드디어 싸움의 날이 닥쳐왔다.

립진강을 건너 섬오랑캐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덕수현으로 달려들었다. 덕수현은 성은 없었지만 린근에서 제일 집이 많은 곳이었다.

왜적들은 제물을 약탈하려고 피눈이 되어 집집에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림자도 볼수 없었고 집들은 텅텅 비어 마치 썩어있을뿐이었다. 더구나 먹을것은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먹을 물조차 얻을 길이 없었다. 그것은 마을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갈 때 우물이란 우물은 몽땅 흔적도 없이 배워 버렸기때문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적장은 집들을 모조리 불사르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저기서 삼간같은 불길기 하늘로 치솟아올랐다.

《둥둥둥, 둥둥둥》하고 산마루에서 북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집집에 불을 지르던 놈들은 어디선가 들리는 북소리에 정신이 얼벌벌해졌다. 한동안

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왜군장졸들은 일제히 그 산으로 물러갔다. 말을 탄 왜장들이 앞장에 서고 그뒤로 병졸들이 험레벌떡 따랐다. 하지만 산밑에 이른 놈들은 더 전진할 생각을 못했다. 그것은 산이 너무도 가파르렀기 때문이었다. 대오의 앞에 선 왜장이 말을 세우자 그뒤를 따르던 병졸들도 멎어섰다. 왜적피수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이 산을 에워싸고 올라가라. 저항하는 놈들은 총으로 쏘아죽이라. ... 산에 올라가서 닥치는대로 죽이라.》

왜군장졸들은 피수의 명령이 내리기 바쁘게 산을 에워싸더니 이윽고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요하던 산은 갑자기 요란한 총성과 시끄러운 왜말소리로 몹시도 소란스러워졌다. 불발음도 터지는 조총소리에 천지가 금시 뒤바뀌는 듯했다.

놈들이 산중턱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산마루에서 또다시 《둥둥

둥둥둥, 둥둥 둥둥둥》하고 북소리가 일더니 별안간 엄청난 큰 통나무들이 여기저기서 무섭게 굴러내렸다. 바깥쪽은 울렁거리던 통나무들이 산비탈에 쏟아져내리는 것이었다.

험레벌떡 산중턱에까지 올라왔던 왜병들은 수백명이 한꺼번에 통나무뿌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러자 산마루에서 덕수마을사람들의 환성이 터졌다.

몇모퉁이 거여오르다가 통나무뿌리를 맞은 놈들은 얼떨바를 모르고 갈망질광하였다. 왜장들은 한동안 지나서야 살아남은 놈들을 다시 그려보았다.

왜적피수는 피발이 선 눈으로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젠 통나무가 다 굴러내렸으니 무서울것이란 없다. 올라가면서 총 몇방만 쏘면 다 도망칠것이다. 저기 산마루와 산중턱에 있는 놈들을 보니 군대도 아니고 백성놈들이다. 자, 어서 산으로 오라라!》

또 통나무가 굴러내릴것

같아 왜병들은 한자리에서 맴돌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두세놈이 피수의 칼에 맞아 죽은 뒤에야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며 언덕으로 기어올라왔다.

산중턱에 이른 적들은 상대의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어리둥절하여 전진을 멈추었다. 바로 이 순간 산마루에서 《둥둥둥 둥둥, 둥둥둥 둥둥》하고 북소리가 울리더니 갑자기 비발치듯 화살들이 날아왔다. 여기저기

이 쓰러뜨렸다. 이에 왜적들은 황급히 이리 물러가지리 물리며 갈망질광하였으며 끝내는 무절서하게 도망쳤다.

두차례의 싸움에서 많은 군사를 잃고 맥이 빠진 적장들은 이날 저녁 산기슭에 진을 쳤다.

한편 산위에 있는 덕수마을사람들은 밤이 깊어지자 날랜 젊은이들을 뽑아서 화약에 불을 붙여 적진을 향해 던지게 하였다. 이 불벼락을 맞은 놈들은 밤잠도 제대로

많은것을 보니 다룬데 있던 놈들을 여기에 더 끌어들이는 모양이었다.

산밑을 이윽히 굽어본 좌상로인은 적들을 바짝 끌어당기게 하였다. 적들은 어느 사이에 통나무뿌리와 화살벼락을 맞았던 그 지경을 넘어섰다.

산중턱에 올라서도 아무런 기척을 느끼지 못한 놈들은 밤사이에 조선군사들이 모두 빠져간줄로 여기고 긴장을 풀었다. 적들은 총대를 거꾸로 메고 한숨 돌리려는 기색을 보였다. 이때 산마루에서 《둥둥 둥둥둥, 둥둥 둥둥둥》하고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방에서 돌사태가 쏟아져내렸다. 여기저기서 집제같은 바위가 굴러내려오는데 하나가 열, 백으로 쪼개지면서 왜적들을 짓이겨놓았다. 이 돌벼락은 정면 피해공간이 없었다. 왜군은 무수한 시체를 남기고 황급히 물러났다. 일이 이쯤되니 왜군은 산을 빼앗음을 더는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원래 악착한 놈들이라 쉽게 물러서려고는 하지 않았다.

왜장들은 산기슭에서 좀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이윽고 군사들이 굽어죽을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싸움은 아침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른새벽에 왜적들은 산 언덕을 새까맣게 덮으며 기어올라왔다. 퍼그나 인원이



잘수 없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싸움은 아침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른새벽에 왜적들은 산 언덕을 새까맣게 덮으며 기어올라왔다. 퍼그나 인원이

평양에서 국내외관광객들에 대한 관광봉사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평양시내에 대한 특색있는 관광일정에 따라 관광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인기를 끄는것은 조경량비행기에 의한 관광비행이다.

조경량비행기를 타고 수백m 상공에 떠올라 5월1일 경기장과 룡파공터어관, 주체사상탑, 미려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향로를 따라 날으면서 평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부감하는 쾌감과 멋진 이루 다 표현할수 없다.

이체를 떠는 관광봉사

시간을 보낸다.

관광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특색있게 꾸러진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에서 여념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가 쏘아맞힌 평을 비롯한 동물들을 받아안고 누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메아리사격관이며 물의 세계를 마음껏 느끼게 하는 문수

듯한 자연박물관.

각이한 나라와 각이한 환경에서 사는 희귀한 동물들과 태평양의 깊은 바다물속, 사막이나 습지대, 열대의 울창한 수림,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무연한 초원 등 너무나

도 생동한 자연박물관의 전시물들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은 저저마다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가 쏘아맞힌 평을 비롯한 동물들을 받아안고 누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메아리사격관이며 물의 세계를 마음껏 느끼게 하는 문수



19세기 우리 민족의 재능 있는 풍속화가었던 우진호작 《농민생활도》중에서 《달맞이》

추석(한가위—음력 8월 15일)은 가을저녁이라는 뜻으로 오곡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인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달을 명절로 즐기던 데로부터 생겨났다.

추석명절을 맞으며 조상의 무덤을 먼저 찾아 풀도 베주고 그해의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것은 언제나 옷사람을 존경하고 절제이 밝으며 의리가 깊은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속의 반영이었다.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한해농사를 다 짓고 가을 길이를 앞둔 추석날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풍습으로 지켜왔다.

추석명절의 독특한 민족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 설기떡, 찰

떡, 밤단자와 노치 등이 있었다.

특히 송편은 빠져서는 안되는 음식으로 일러왔다. 송편은 흰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소를 넣고 반달모양으로 빚어서 시루에 찌낸 떡이다.

또한 쌀가루에 물을 두고 푸실푸실하게 만든 다음 시루에 안쳐서 찌는 기법과 함께 찰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김가루를 두고 삭힌 다음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노르스름하게 지져낸 노치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자랑할만 한것이었다. 이날 우리 선조들은 세름과 그네뛰기, 바둑당기, 소놀이, 거북기놀이, 길쌈놀이와 같은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진행하였다.

달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달을 좋아하여 여러가지 민속적인 풍속들도 많이 전해오고있다.

전통적으로 시와 노래에서도 달이야기가 없으면 일러주지 않을 정도였는데 시를 짓거나 읊는것을 풍월이라 한것도 그와 관련된것으로 보아진다.

특히 농사를 친하지대본으로 귀중히 여겨온 우리 선조들은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서 달과 관련된 명절가운데서 농사를 할수 있는 한해가 시작되

었음을 알리는 상원(정월대보름)과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중추(추석 또는 한가위)를 그중 크게 쇠어왔다.

1년동안 열두번 있게 되는 보름가운데서 상원과 중추의 보름에만 크거나 많은것을 의미하는 정월대보름과 추석(한가위)이라는 이름이 붙은것은 그만큼 두 보름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일상생활에서 보자기를 널리 썼었다.

일상적으로 보자기는 한자로 《쌀 보》라고 하여 보, 보자, 보자로도 불리는데 밥상보, 이불보, 패대보가 있고 기우제를 지낼 때 제단에 치거나 조상의 영정(얼굴을 그린 족자)을 싸두는 등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함을 싸는 보자기나 청색과 홍색의 패백보(레를 갖추어 물건을 싸는 보), 학과 거북기를 수놓은 청호보(청호날 때 혼서를 싸는 보), 원앙새를 수놓은 허호보(혼인에 동의하여 레장감을 보낼 때 싸는 보)도 있었다.

보자기는 넓게 퍼서 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작게 접어둘수 있었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였다.

수를 놓거나 조박천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보자기를 만드는 바느질은 어른을 공경하고 복을 비는 정성 어린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이런 보자기에 물건을 싸두는것은 복을 싸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은 결혼을 앞두고 광복이나 비단에 나무, 꽃, 봉는 등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림이나 글자를 수놓았으며 청색과 홍색의 비색과 홍색의 패백보(레를 갖추어 물건을 싸는 보), 학과 거북기를 수놓은 청호보(청호날 때 혼서를 싸는 보), 원앙새를 수놓은 허호보(혼인에 동의하여 레장감을 보낼 때 싸는 보)도 있었다.

보자기는 넓게 퍼서 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작게 접어둘수 있었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였다.

수를 놓거나 조박천들을